

서울

아트하우스 모모
9월 9일(목) - 9월 15일(수)

부산

영화의전당
9월 9일(목) - 9월 15일(수)

광주

광주극장
9월 9일(목) - 9월 13일(월)

대구

CGV대구 한일
9월 10일(금) - 9월 14일(화)

인천

영화공간주안
9월 23일(목) - 9월 26일(일)

주최

주한스웨덴대사관
스웨덴대외홍보처
스웨덴영화진흥원

주관

(주)영화사 백두대간
(재)영화의전당
(주)광주극장
CGV대구 한일
영화공간주안

후원

한서문화예술협회

10

제10회 스웨덴영화제

THE 10TH SWEDISH FILM FESTIVAL



주최

주한스웨덴대사관
스웨덴대외홍보처
스웨덴영화진흥원

주관

(주)영화사 백두대간
(재)영화의전당
(주)광주극장
CGV대구 한일
영화공간주안

후원

한서문화예술협회



제10회 스웨덴영화제

THE 10TH SWEDISH FILM FESTIVAL

서울

아트하우스 모모
9월 9일(목) - 9월 15일(수)

부산

영화의전당
9월 9일(목) - 9월 15일(수)

광주

광주극장
9월 9일(목) - 9월 13일(월)

대구

CGV대구 한일
9월 10일(금) - 9월 14일(화)

인천

영화공간주안
9월 23일(목) - 9월 26일(일)



환영인사

스웨덴영화제에서 만나요!



제 10회 스웨덴영화제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국과 스웨덴 양국간 상호 이해와 우정을 증진시키는 스웨덴영화제 올해의 주제는 ‘삶의 지속가능한 가치’입니다.

2012년 실비아 왕비의 개막으로 시작을 열었던 스웨덴영화제가 올해로 10회를 맞이했습니다. 한서문화예술협회, 주한 스웨덴 명예영사, 파트너 영화관을 비롯해 스웨덴대외홍보처, 스웨덴영화진흥원의 아낌없는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제10회 스웨덴영화제에서는 한국 미개봉 최신작 다섯 편과 예년 영화제에서 인기를 누렸던 기존 출품작 다섯 편으로 구성된 총 10 편의 스웨덴 영화를 서울, 부산, 광주, 대구, 인천의 5개 도시에서 9월 9일부터 26일까지 선보입니다.

주한 스웨덴 신임대사로서 맞이하는 첫번째 스웨덴영화제이자 올 가을 대사관에서 주최하는 첫번째 주요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예술과 문화가 사람을 연결하고 우리의 관점을 넓히는 힘을 굳게 믿습니다. 올해 상영하는 영화는 희망을 잃지 않으면서도 도전과 슬픔, 갈등에 직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매우 스웨덴적인 캐릭터와 디테일을 다루고 있지만, 매우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10회 스웨덴영화제가 지난 10년을 되돌아 보고 기념하며 향후 10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시작을 알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스웨덴영화제에서 만나요!

다니엘 볼벤
주한 스웨덴 신임대사

축하인사

코로나도 예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한스웨덴대사관이 스웨덴대외홍보처, 스웨덴영화진흥원과 함께 2012년부터 주최해온 스웨덴영화제가 올해로 10회를 맞았습니다. 스웨덴영화제는 평소 접하기 어려운 스웨덴 영화를 통해 최고 수준의 복지과 평등을 실현한 스웨덴 문화를 한국에 뿌리내리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스웨덴 영화예술의 특징은 상업영화에 비해 예술영화의 비중이 크다는 점입니다. 예술영화의 비중이 70%에 이르고,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주의 성향의 작품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스웨덴 영화에 대한 지식입니다.

스웨덴 영화의 또 다른 특징은 다양성과 성평등의 가치관입니다. 지난해 스웨덴영화제에 상영된 영화 중에는 여성 감독이 연출한 작품 7편과, 여성이 주인공인 영화 4편이 포함됐습니다. ‘불평등’이라는 과제에 치열하게 접근하는 스웨덴의 높은 인식을 접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제10회 스웨덴영화제에 상영되는 작품들 역시 스웨덴의 가치를 예술에 접목한 수준 높은 작품들로 알고 있습니다. 블록버스터나 수상작 위주로 소개되는 우리 영화계 풍토에서 스웨덴영화제는 세계 최고의 복지, 평등을 실현한 스웨덴의 정신과 문화의 내면을 접하는 훌륭한 기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난해 이어 코로나 전염병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영화제 개최와 진행 방식에 고민이 깊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도 예술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류가 헤쳐온 수많은 팬데믹, 역경을 돌이켜 보면 코로나 역시 극복될 대상일 뿐입니다. 제10회 스웨덴영화제를 통해 코로나로 위축된 일상을 떨치고 복구의 예술을 감상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서문화예술협회가 스웨덴영화제에 미력을 더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함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균
한서문화예술협회장



허남웅
영화평론가

한국 영화 팬들에게 스웨덴 영화는 친근한 콘텐츠다. 잉마르 베리만과 잉그리드 버그먼과 같은 전설을 소환하지 않더라도,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에 빛나는 루벤 외스트룬드의 <더 스퀘어>(2017)와 아카데미 시상식 다큐멘터리 오스카상을 받은 말릭 벤젠들의 <서칭 포 슈가맨>(2012)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빠빠 롱스타킹’으로 유명한 아동문학 작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삶을 다룬 <비커밍 아스트리드>와 15세의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를 다룬 다큐멘터리 <그레타 툰베리>가 극장 개봉하여 한국 관객과 만났다. 그 외에도 다양한 장르와 소재의 작품이 한국 관객과 통할 수 있었던 주요한 배경에는 매년 스웨덴 영화를 소개하고 관련한 부대행사를 기획했던 스웨덴영화제의 노력이 있었다.

올해로 스웨덴영화제가 10년을 맞았다. 2020년은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하며 많은 영화제가 개최에 어려움을 겪었던 한 해이었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스웨덴영화제는 오프라인 상영을 유지하고 관객과 만나며 행사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한 많지 않은 영화제 중 하나이었다.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지 않은 2021년에도 안전한 방역과 극장 환경에서 영화제는 계속된다. 개최에도 의의가 있지만 스웨덴영화제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다가올 10년을 위한 발걸음을 새롭게 떼는 시작이기도 하다. 지난 10년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스웨덴 사회와 문화, 그리고 그 사회가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를 공유해 왔던 제10회 스웨덴영화제의 주제는 ‘지속가능한 삶의 가치’이다.

제10회 스웨덴영화제에서 만날 수 있는 작품은 총 10편이다. 지난 1년 동안 스웨덴에서 주목받았던 다섯 편과 함께 제3회부터 제 7회 스웨덴영화제 개막작 다섯 편의 작품을 선정했다. 이들 작품을 관통하는 핵심은 다양한 삶의 형태이다. 깨진 가족애를 통합하려는 엄마부터 늦은 나이에 성 정체성을 깨달은 아빠까지, 일과 사랑 사이에서 방황하는 스웨덴 청년부터 빈민촌에서 희망의 싹을 틔우는 스코틀랜드의 미혼모까지, 불가능할 거라는 주변의 시선을 극복하고 꿈을 이루는 장애우부터 병마와 싸우는 아빠를 위해 힘이 되어주는 가족까지, 우리와 다르지 않은 인물에게서 고군분투하는 삶의 다채로운 형태를 만날 수 있다. 지난 10년의 작품을 아우르는 제10회 스웨덴영화제의 10편의 작품은 결국, 삶이란 지속 가능한 가치를 위한 아름다운 투쟁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설득한다.

영화는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오프라인의 물리적인 제약을 초월하는 매체다. 지난해처럼 올해도 영화제 상영작의 감독과 배우와 스태프가 직접 한국을 찾아 관객과 만나는 대면 행사는 없다. 아직 국가 간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아서다. 그렇다고 소통할 기회까지 사라진 건 아니다. 제9회 스웨덴영화제 당시 관련한 영화인들을 온라인의 비대면 방식으로 만나 미리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화 속 장면과 함께 편집한 영상을 해당 상영작과 함께 방영하고 시네마토크를 진행하여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고 스웨덴영화제만의 독특한 행사가 되었다. 제10회 스웨덴영화제 기간에도 주요 상영작의 감독과 주역들이 들려주는 흥미로운 비하인드스토리를 영상 인터뷰로 만날 수 있다.

삶을 모색하다

<차터>

올해의 개막작은 <차터>다. 양육권을 잃은 알리세는 헤어진 남편에게서 몰래 아이들을 데려온다. 함께할 수 있을 거란 기대와 다르게 알리세가 아이들을 잘 보살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이런 소재의 영화는 양육권을 잃은 엄마를 향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거나 부모 싸움에 소외된 아이를 조명하는 것이 보통이다. <차터>는 자식 사랑만으로 여러 제약을 극복하는 것이 알리세 자신에게나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게 한다. 그와 같은 현실 인식이 알리세와 아이들을 훗날 더 강하게 할 거라는 연출자의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

삶에 감동하다

<나의 아빠 마리안> <런 우에 런>

삶은 무수한 우여곡절을 겪지만, 그럼으로써 주변과 단단해지고 함께 걸을 수 있는 지속성을 갖는다. <나의 아빠 마리안>의 한나는 아빠가 공개적으로 여성성을 드러내자 혼란하다. 고민을 풀어놓고 싶는데 생각나는 사람은 아빠뿐이다. 이해의 범위를 넘어 가족은 감정적으로 단단하게 묶여 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나의 아빠 마리안>은 우리 모두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인정한다면, 특히 그 대상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면 인생은 사랑으로 더 충만할 수 있다는 걸 다정하게 손길을 내밀듯 전한다.

한나처럼 우에도 평화롭던 일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런 우에 런>

은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우예와 그 가족이 받아들여야 하는 아픈 현실을 유쾌한 연출로 다루고 있다. 우예를 연기한 우예 브란델리우스 본인의 이야기를 영화화했다. 우예의 가족이 직접 출연했고, 우예의 지인들이 스태프로 참여해 영화를 만들었다. 우예 자신이 병을 감추기보다 세상에 드러낸 것처럼 영화는 동정심을 자아내는 연출과 이야기는 지양하고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노래와 음악으로 우예의 심리 묘사를 대신한 연출이 무대 위 한편의 공연을 보는 듯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한다.

삶을 포착하다

<캐워크> <스킴 버드>

다큐멘터리는 현실을 꾸밈없이 포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타인에게 갖는 선입견을 깨는 장르다. 패션모델 하면 떠오르는 특정 신체 비율과 다르게 <캐워크>의 엠마와 이다와 니콜라스와 알렉산데르와 키티는 장어를 가지고 있다. 영화는 불가능할 것만 같던 패션모델의 꿈을 이루기 위해 주인공들이 차례차례 단계를 밟아가는 과정에 집중한다.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어 이들의 캐워크는 특별하게 다가온다. 동시에 대다수와 ‘다르지 않게’ 원하는 꿈을 현실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모습에서 보편성을 갖는다. 어떠한 수식도 없는 제목이 영화의 주인공들을 바라보는 관객의 편견 없는 시선을 유도한다.

‘스킴’은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외곽의 서민임대주택 단지다. 이 지역은 한때 제철산업으로 부강했지만, 대처 시대 이후로 산업이 몰락하면서 빈민촌이 되었다. 이곳에서 성장기를 보낸 쟈마는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잦았다. 그래서 “감옥에 가거나, 맞아 쓰러지거나” 냉소적으로 반응했던 쟈마는 아이를 가지면서 삶이 극적으로 변했다. 쟈마의 사연이 워낙 드라마틱하여 허구처럼 느껴지는 <스킴 버드>는 스웨덴 감독이 참여한 다큐멘터리다. 새를 기르는 할아버지 손에서 자란 쟈마는 엄마가 되면서 새장 밖으로 날아간 비둘기처럼 스킴을 떠나 세상을 새롭게 바라본다. 제목이 ‘스킴의 새 Scheme Birds’인 이유다.

<스톡홀름 스토리> <언더독> <미나의 선택> <베리만 아일랜드> <문 오브 마이 오운>

2015년 4회 영화제의 개막을 알린 <스톡홀름 스토리>는 작가의 재능이 부족한 요한, 연인 관계가 깨진 안나, 안나를 남몰래 사랑하는 더글라스, 감정 표현이 과격한 예시카, 감정 표현이 서툰 토마스 등 스톡홀름을 배

경으로 흩어져 있던 다섯 인물의 사연을 하나로 엮었다.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할 것 같은 주인공들이 자신을 알아봐 주는 이를 만나 밝게 웃는 모습이 어둠에 휩싸인 스톡홀름의 밤거리를 환하게 비추는 듯하다. <언더독>은 2016년 5회 개막작이었다. 스웨덴을 떠나 노르웨이로 이주한 젊은 디노는 일자리를 찾던 중 아내와 별거 중인 스테펜의 아이 돌봄 일을 맡는다. 스테펜의 두 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디노는 스테펜과 깊은 사이로 발전한다. 그 때문에 서로 호감을 느꼈던 첫째 딸과 서먹해진다. 남성이자 아버지이자 중산층인 스테펜에 비해 ‘약자 Underdog’인 디노와 스테펜의 첫째 딸이 혼란한 상황을 타개하려고 손을 잡는 결말이 백미다.

미나는 마약범에게 돈만 받고 물건을 주지 않았다가 쫓기는 신세가 된다. 도주하던 중 알코올 중독자 카디아를 만난 미나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거주하며 겨우 안정을 찾는다. 하지만 미나를 찾은 마약범들이 들이닥치고 경찰 또한 공동체의 불법 점거를 문제 삼으면서 일이 커진다. 2017년 6회 개막작인 <미나의 선택>은 밀바닥 삶의 위험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미나와 주변 인물을 통해 북유럽 사회의 그늘진 구석을 고발한다.

2018년은 잉마르 베리만 탄생 100주년이었다. 그해 스웨덴영화제의 개막작이었던 <베리만 아일랜드>의 부제는 ‘포피섬에서 만난 영화와 인생’이다. 베리만이 1960년대 중반부터 생의 마지막까지 포피섬에 집을 짓고 살았던 건 유명하다. 이 집은 베리만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안식처이었고, 그가 만든 영화와 연극 자료가 보관된 기록소였고, 그가 연출한 영화의 배경이었다. <베리만 아일랜드>를 연출한 마리 뉘레로드가 묻고 베리만이 답하는 인터뷰를 따라 카메라가 비추는 집과 섬의 요모조모는 그대로 베리만의 삶과 영화와 연결된다.

테드 예르데스타드는 형 케네스 예르데스타드가 쓴 가사로 음악을 만들어 첫 앨범부터 여러 곡을 히트시킨 스웨덴의 전설적인 싱어송라이터였다. 이른 나이에 스타덤에 올라 주변의 관심이 부담되어 약손을 대고 가족과 멀어지는 등 추락하는 삶을 경험하기도 했다. <문 오브 마이 오운>은 <오베라는 남자>의 연출자로 유명한 한네스 홀름 감독이 만들었다. 케네스 예르데스타드가 참여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과정에 방점을 찍어 스타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테드를 조명한다. 2019년 8회 스웨덴영화제의 개막작이었다.

제 10회
스웨덴영화제

The10th
SWEDISH FILM FESTIVAL

상영작 소개

자막 **K** 한글자막 **KE** 한영 동시자막

등급 **G** 전체관람가
12 12세이상관람가
15 15세이상관람가
R 청소년관람불가

게스트토크 스웨덴 영화 게스트 영상인터뷰



차터 Charter



감독 아만다 세르넬

2020 / 컬러 / 94분 / 가족 드라마, 여성 영화 **12** **K** **개막작** **게스트토크**

각본 아만다 세르넬

출연 아네 달 트로프, 스베리르 구드나손, 트로이 룬드크비스트, 틴틴 포캇스 사리, 요한 벡스트룀, 에바 멜란데르

촬영 소피아 울손

제작 라스 G 린드스트룀

각주 2021년 미국 아카데미상 출품.

2021년 스웨덴 골드바게상 감독상(아만다 세르넬),
촬영상(소피아 울손), 여우주연상(아네 달 트로프)

“결국엔 다 잘 풀릴 거겠어”

알리세는 양육권 싸움에서 자신이 질 거라는 사실을 깨닫고, 남편의 동의 없이 두 아이를 데리고 휴가를 떠나 아이들의 마음을 돌리려 한다.

나의 아빠 마리안 My Father Marianne



감독 모르텐 클링베리

2020 / 컬러 / 110분 / 가족 드라마, LGBTQ **12** **K** **게스트토크**

각본 이다 셸린, 다니엘 칼손

출연 엘리스 제르트, 박스테르 렌만, 테아 웨르네, 시셀라 벤, 프레데리크 할그렌, 릴리 발스틴, 은 외스터룬드

촬영 시몬 프람스텐

제작 아반티 필름 - 샬로타 덴바르드

각주 2021년 스웨덴 골드바게상 여우조연상 수상 (레나 엔드레)

“우리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존재라고”

수염이 덩수룩한 목사이자 한나의 사랑하는 아빠는 한나에게 자신의 진짜 이름은 마리안이라고 말한다. 한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는다. 자신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아빠를 이해할 수가 없다. 한나는 자신에게서 아빠를 빼앗아간 마리안을 미워하지만 마리안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건너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는다.



런 우예 런 Run Uje Run



감독 헨릭 휘페르트

2020 / 컬러 / 77분 / 가족 드라마, 음악 영화 **G K** 게스트북

각본 우예 브란델리우스
출연 우예 브란델리우스, 빅시 브란델리우스, 베가 브란델리우스, 테레스 혼크비스트, 이르마 솔츠, 카티 브란델리우스
촬영 프리다 벤델
제작 안나클라라 칼스텐, 토마스 미카엘손
각주 2021년 스웨덴 골드베게상 최우수작품상(안나클라라 칼스텐, 토마스 미카엘손), 최우수각본상(우예 브란델리우스), 남우주연상(우예 브란델리우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것이 바로 인생”

우예 브란델리우스의 자전적인 영화. 감독 헨릭 휘페르트의 데뷔작이다. 상상도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는 인생에 관한 영화로 너무 늦기 전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지 이야기한다.



스킴 버드 Scheme Birds



감독 엘렌 피스케, 엘리노르 할린

2019 / 컬러 / 86분 / 다큐멘터리 **B K**

각본 엘렌 피스케, 엘리노르 할린
촬영 엘리노르 할린
제작 시쉬포스 필름 프로덕션 - 마리오 아담손
각주 2019년 뉴욕 트라이베카 국제 영화제 최우수 다큐멘터리 장편영화상, 엘버트 메이슬리스 신인 다큐멘터리 감독상 수상

“나는 잘해내고 있어요”

스코틀랜드 청년들의 좌절을 담은 다큐멘터리. 이제 곧 엄마가 될 젼마라는 한 소녀의 눈을 통해 쇠락한 철강 도시의 현실을 보여 준다. 폭력이 일상이며 ‘임신하거나 감옥에 가거나’ 둘 중 하나인 이 도시에서 젼마는 애써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캣워크 Catwalk



감독 요한 스코그

2020 / 컬러 / 95분 / 다큐멘터리 **G K**
 각본 리아 세데르스트룀, 테레세 브링홀름, 요한 스코그
 출연 페르 요한손, 엠마 외르틀룬드, 이다 요한손,
 알렉산데르 로들룬드, 니콜라스 힐베리, 키티 운손
 촬영 비외른 세른베리, 린 마른펠트
 제작 스토리파이어 - 펠레 오르그렌

“각자의 개성으로 환상적인 무대가 탄생할 거예요”

패션모델이 되고 싶은 엠마는 페르 요한손과 글라다 후디크 극장에 도움을 요청한다. 패션모델은 대부분 사람에게 이루기 힘든 꿈이다. 특히 장애가 있다면 더욱 그렇다. 평범하지 않은 모델들이 함께 모여 놀라운 여정을 시작한다.

문 오브 마이 오운 A Moon of My Own



감독 한네스 홀름

2018 / 컬러 / 120분 / 드라마, 음악 영화 **B K**
 출연 아담 폴손, 페테르 비타넨, 해피 안켈, 요나스 칼손,
 요한 헤덴베리, 토베 에드펠트, 마리아 콜레
 각주 제8회 스웨덴영화제 개막작

“진짜 중요하게 뭘지! 멈춰서 생각해 보는 거죠”

<오베라는 남자>의 감독 한네스 홀름이 들려주는 스웨덴 대중음악, 사랑, 성공에 관한 따뜻하고 울림있는 이야기이자 뛰어난 재능의 뒤를 따라다니는 어둡고 위협적인 그림자에 관한 이야기이다. 70년대에 활동한 음악 천재 테드는 뛰어난 재능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하루 아침에 인생이 뒤바뀐다. 음악계의 거물들이 그의 곁으로 몰려들고, 테드는 전국의 무대를 모두 정복하며 십대 소녀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하지만 성공의 파도가 밀어닥치자 형의 무조건적 사랑에도 테드는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리고 테드 주변의 그림자는 점점 짙어만 가는데...



베리만 아일랜드 Bergman Island



감독 마리 뉘레로드

2006 / 컬러 / 84분 / 다큐멘터리 **G KE**
 촬영 아르네 칼손
 제작 마리 뉘레로드, 스웨덴공영방송
 각주 제7회 스웨덴영화제 개막작

“다 끝났어요”

잉마르 베리만(1918-2007)은 전세계 영화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영화감독 중 하나이다. 그는 <한 여름밤의 미소>, <제7의 봉인>, <산딸기>, <화니와 알렉산더> 같은 작품을 선보이며 사람들의 존중과 존경을 받았다. 60년 넘는 세월을 영화감독으로 활동한 그는 본 영화에서 85세의 나이로 등장한다. 발트해에 있는 황량하고 신비로운 포뢰섬에 꾸린 자신만의 세상을 생애 최초로 공개한다.

미나의 선택 Drifters



감독 페테르 그뢴룬드

2015 / 컬러 / 96분 / 드라마 **R KE**
 출연 말린 레바논, 로 카우피, 토마스 네우만
 각주 제6회 스웨덴영화제 개막작

“사고 치지 마요. 여긴 더불어 사는 곳이니까.”

길거리에서 마약을 팔며 살아가는 미나는 집세가 밀리자 젊은 마약범들에게 사기를 쳐 돈을 타낸다. 도망자 신세가 된 미나는 위탁 가정애 아들을 맡긴 알코올 중독자 카티아를 만나서 시 외곽의 불법체류지에 함께 거처를 마련한다. 고양이 한 마리와 함께 캠핑카에서 살게 된 미나와 카티아는 서로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간다. 하지만 자신을 쫓는 마약범들과 경찰의 추적을 받게 된 미나는 카티아를 위해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



언더독 Underdog



감독 론니 산달

2015 / 컬러 / 97분 / 드라마 **R KE**

출연 비앙카 크론펙프, 헨릭 라파엘센, 모나 크리스티안센
각주 제5회 스웨덴영화제 개막작

“돈 줬다고 디노를 가진 건 아니죠”

23살의 디노는 일자리를 얻기위해 스웨덴에서 노르웨이로 이주해 왔지만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일해야 하는 현실이 불안하기만 하다. 공동 숙소에서 지내며 불규칙한 임시직에 방탕한 파티가 무의미하게 계속되던 어느날, 그녀는 우연히 한 중산층 가정의 베이비시터 일을 맡게 된다. 가족 구성원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나가던 디노는 아내와 별거 중인 스테펜과 사춘기를 겪고 있는 그의 딸 이다 사이에서 미묘한 삼각 관계를 형성하며 예상치 못한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스톡홀름 스토리 Stockholm Stories



감독 카린 팔리엔

2013 / 컬러 / 97분 / 드라마, 멜로, 로맨스 **15 KE**

출연 마르틴 발스트림, 요나스 칼손, 세실리아 프로데, 율리아 랑나르손
각주 제4회 스웨덴영화제 개막작

“당신 없이 당신은 누구죠?”

11월의 아름다운 스톡홀름. 빛과 어둠에 집착하는 재능부족 작가 요한, 과일바구니 경품을 유령 코미디언에게 뺏기고 복수를 다짐하는 광고계의 천재 예시카, 수수께끼의 편지에 집착해서 기묘한 사랑에 빠지고 마는 재정부의 인재 토마스, 연인에게 버림받고 길에 나왔게 된 아름답고 절박한 여인 안나, 폭군 아버지에 시달리는 말더듬이 상류층 자제 더글라스 등 흥미진진한 다섯 개의 스토리가 불꽃처럼 명멸한다.



제10회
스웨덴영화제

The 10th
SWEDISH FILM FESTIVAL

상영작 소개

자막 **K** 한글자막 **KE** 한영 동시자막

등급 **G** 전체관람가
12 12세이상관람가
15 15세이상관람가
R 청소년관람불가

게스트토크 스웨덴 영화 게스트 영상인터뷰
시네토크 평론가와 함께하는 시네마 토크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9/9 목(Thu)	11:00 12 K 개막작 차터 게스트토크 런 우에 런	14:00 6 K 런 우에 런 게스트토크	17:00 15 KE 스톡홀름 스토리	19:30 12 K 나의 아빠 마리안 게스트토크
9/10 금(Fri)	11:00 6 KE 미나의 선택	14:00 15 K 스킵 버드	17:00 6 KE 언더독	19:30 6 K 켓윅
9/11 토(Sat)	11:00 12 K 나의 아빠 마리안 게스트토크	14:00 15 K 문 오브 마이 오운	17:00 12 K 개막작 차터 게스트토크	19:30 6 K 런 우에 런 게스트토크
9/12 일(Sun)	11:00 15 KE 스톡홀름 스토리	14:00 6 K 켓윅	17:00 15 K 스킵 버드	19:30 6 KE 베리만 아일랜드
9/13 월(Mon)	11:00 12 K 나의 아빠 마리안 게스트토크	14:00 12 K 개막작 차터 게스트토크	17:00 6 KE 언더독	19:30 6 K 런 우에 런 게스트토크
9/14 화(Tue)	11:00 6 K 런 우에 런 게스트토크	14:00 6 KE 베리만 아일랜드	17:00 6 KE 미나의 선택	19:30 15 K 스킵 버드
9/15 수(Wed)	11:00 15 K 문 오브 마이 오운	14:00 12 K 나의 아빠 마리안 게스트토크	17:00 6 K 켓윅	19:30 12 K 개막작 차터 게스트토크

- 티켓예매: 9월 1일(수) 오후 2시부터 아트하우스 모모 홈페이지 www.arthousemomo.com
- 현장 예매 불가, 온라인 예매만 가능
- 예매가격: 1000원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9/9 목(Thu)			16:00 12 K 개막작 차터 게스트토크	18:30 15 K 스킵 버드	20:20 6 KE 미나의 선택
9/10 금(Fri)	12:00 6 KE 언더독	14:10 6 K 켓윅	16:20 6 KE 베리만 아일랜드	18:10 15 KE 스톡홀름 스토리	20:10 6 K 런 우에 런 게스트토크
9/11 토(Sat)	10:30 15 K 문 오브 마이 오운	13:00 6 K 런 우에 런 게스트토크	15:15 12 K 나의 아빠 마리안 게스트토크	18:00 12 K 개막작 차터 게스트토크	20:30 15 K 스킵 버드
9/12 일(Sun)	11:30 6 KE 미나의 선택	13:30 6 K 켓윅	15:30 6 K 런 우에 런 게스트토크	17:40 12 K 나의 아빠 마리안 게스트토크	20:20 6 KE 언더독
9/13 월(Mon)		14:30 6 KE 베리만 아일랜드	16:20 15 K 문 오브 마이 오운	18:20 15 KE 스톡홀름 스토리	20:20 12 K 개막작 차터 게스트토크
9/14 화(Tue)		13:30 15 K 스킵 버드	16:10 6 KE 언더독	18:00 6 K 켓윅	20:00 6 KE 미나의 선택
9/15 수(Wed)		13:00 12 K 나의 아빠 마리안 게스트토크	15:40 6 KE 베리만 아일랜드	17:30 15 KE 스톡홀름 스토리	19:30 15 K 문 오브 마이 오운

- 온라인 예매: 9월 1일(수) 오전 9시부터 영화의전당 홈페이지 www.dureraum.org
- 오프라인(현장)발권: 9월 4일(토) 오전 9시부터 마지막 상영 시작까지 시네마라운 6층 매표소에서 구입 가능
- 예매가격: 1000원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9/9 목(Thu)					19:20 12 K 개막작 차터 게스트토크
9/10 금(Fri)	10:40 6 K 캣워크	13:00 15 K 스킴 버드	15:00 15 K 문 오브 마이 오운	17:20 6 KE 베리만 아일랜드	19:20 6 K 런 우에 런 게스트토크
9/11 토(Sat)	10:40 15 K 문 오브 마이 오운	13:00 15 KE 스톡홀름 스토리	15:00 12 K 개막작 차터 게스트토크	17:20 12 K 나의 아빠 마리안 게스트토크	20:00 15 K 스킴 버드
9/12 일(Sun)	10:40 6 KE 베리만 아일랜드	13:00 6 K 캣워크	15:00 6 K 런 우에 런 게스트토크	17:20 6 KE 언더독	19:20 6 KE 미나의 선택
9/13 월(Mon)	10:40 12 K 나의 아빠 마리안 게스트토크	13:20 12 K 개막작 차터 게스트토크	15:20 15 K 스킴 버드	17:10 6 K 런 우에 런 게스트토크	19:20 6 K 캣워크

- 9월 9일(목) ~ 13일(월) 스웨덴영화제 광주 상영시간표는 광주극장 홈페이지 <http://cafe.naver.com/cinemagwangju>에서 확인 가능
- 영화티켓: 매일 오전 10시 부터 현장 배포 (무료관람)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9/10 금(Fri)					19:00 12 K 개막작 차터 게스트토크
9/11 토(Sat)	11:00 6 K 캣워크	13:10 12 K 나의 아빠 마리안 게스트토크	16:00 6 KE 베리만 아일랜드	18:00 15 K 문 오브 마이 오운	20:30 15 KE 스톡홀름 스토리
9/12 일(Sun)	11:00 6 KE 언더독	13:10 15 K 스킴 버드	15:10 6 K 런 우에 런	17:00 12 K 개막작 차터 게스트토크 시네토크	20:30 6 KE 미나의 선택
9/13 월(Mon)	11:00 6 KE 베리만 아일랜드	13:00 15 KE 스톡홀름 스토리	15:10 15 K 문 오브 마이 오운	17:40 12 K 개막작 차터	19:50 6 K 런 우에 런 게스트토크
9/14 화(Tue)	11:00 15 K 스킴 버드	13:00 6 KE 미나의 선택	15:10 6 K 캣워크	17:20 12 K 나의 아빠 마리안	19:40 6 KE 언더독

- 모든 상영작 무료관람, 상영시간표는 CGV 홈페이지 > 이벤트 또는 CGV 앱 > 이벤트에서 확인 가능
- 영화티켓은 9월 5일(일)부터 현장에서 예매(1인당 2매까지 가능, 온라인예매 불가) 및 발권 가능



3관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9/23 목(Thu)		16:00 G K 켓워크	17:55 I2 K 개막작 차터 게스트토크	20:15 R KE 언더독
9/24 금(Fri)	13:20 R KE 언더독	15:20 I2 K 나의 아빠 마리안 게스트토크	17:55 G K 런 우에 런 게스트토크	20:00 G K 켓워크
9/25 토(Sat)	13:20 I2 K 개막작 차터 게스트토크	15:40 R KE 언더독	17:40 I2 K 나의 아빠 마리안 게스트토크	20:15 G K 런 우에 런 게스트토크
9/26 일(Sun)	13:20 I2 K 나의 아빠 마리안 게스트토크	15:55 G K 런 우에 런 게스트토크	18:00 G K 켓워크	19:55 I2 K 개막작 차터 게스트토크
4관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9/23 목(Thu)		16:00 I5 KE 스톡홀름 스토리	18:00 I5 K 문 오브 마이 오온	20:20 I5 K 스킴 버드
9/24 금(Fri)	13:30 G KE 베리만 아일랜드	15:10 I5 K 스킴 버드	16:55 I5 K 문 오브 마이 오온	19:10 R KE 미나의 선택 시네토크
9/25 토(Sat)	13:30 R KE 미나의 선택	15:25 G KE 베리만 아일랜드 시네토크	18:30 I5 K 스킴 버드	20:20 I5 K 스톡홀름 스토리
9/26 일(Sun)	13:30 I5 K 문 오브 마이 오온	15:50 R KE 미나의 선택	17:50 I5 KE 스톡홀름 스토리	19:50 G KE 베리만 아일랜드

“대한민국의 녹색 성장을 위해 스웨덴이 함께합니다”

‘한국+스웨덴 녹색전환연합’은 한국의 녹색-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는 13개 주한 스웨덴 기업과 주한스웨덴대사관, 주한스웨덴무역투자 대표부 및 주한스웨덴상공회의소가 함께 모여 출범한 국내 최초의 외국계 민간 연합입니다.

ABB 자사 탄소 중립 운영 실현 2030	Atlas Copco 탄소 배출 50% 저감 2030	Envac 에너지 사용량 20% 감축 2030	IKEA 100% 전기차 가구배송 서비스 2025	Kraftpowercon 초미세먼지 온실가스 배출량 30% 저감 2030
Orkla 100% 지속가능한 제품 2025	Scandinavian Biogas 신재생에너지 공급량 2배 확대 2024	Scania 운행트럭 탄소배출량 20% 저감 2026	SF Marina 탄소제로 Floating Village 2025	Tetra Pak 자사 온실 가스 제로 운영 실현 2030
Volvo Cars 100% 충전식 전동화 자동차 2030	Volvo Construction Equipment 탄소배출량 30% 저감 2030	Volvo Trucks 50% 전기 트럭 2030		



- 9월 23일(목)-26일(일) 스웨덴영화제 인천 상영시간표는 영화공간주안 홈페이지 www.cinespacejuan.com에서 확인가능
- 영화티켓은 영화공간주안에서 현장 발권/예매만 가능 (무료관람, 1인당 최대 2매까지 예매 가능, 인터넷 예매 불가)
- 좌석 이용률 변동 가능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한스웨덴대사관 홈페이지 - 스웨덴+한국 녹색전환연합 참조 Swedenabroad.se/seoul

영화제 문의

서울 아트하우스 모모
02-363-5333
www.arthousemomo.com

부산 영화의전당
051-780-6000
www.dureraum.org

광주 광주극장
062-224-5858
<http://cafe.naver.com/cinemagwangju>

대구 CGV대구 한일
1544-1122
www.cgv.co.kr

인천 영화공간주안
032-427-6777
www.cinespacejuan.com

주한스웨덴대사관
02-3703-3700
Infosweden.seoul@gov.se